



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,
특허로 더하는 행복



보도자료

www.kipo.go.kr
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문의	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	과장 이선우 사무관 박기석	042-481-8254 042-481-8184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6년 9월 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9월 6일(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, 특허·디자인·브랜드로 종합 지원한다!

- 특허청, 산업부·미래부·중기청과 함께 IP 융합 전략 확산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-

-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,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) 및 중소기업청(청장 주영섭)과 손잡고, 해외진출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·디자인·브랜드 융합지원 전략 확산을 위한 '글로벌 히트 365' 전문가 포럼을 9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다.
- 최근 시장은 각 지식재산(IP) 경계가 중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, 소비자는 제품의 기술(특허), 디자인 등을 구분하기보다 특허, 디자인, 브랜드가 어우러진 제품의 전체 이미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.
 - 이러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애플로, 기술적으로는 광범위한 독점력을 갖고 있지 못한 애플이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바로 'IP 융합'의 힘 덕택이었다.

- 아이팟, 아이폰 등 애플의 i시리즈 제품들은 기능만으로 된 심플한 디자인에 분야를 넘나드는 혁신기술 적용, 손쉬운 콘텐츠 통합, 그리고 사용자(I, 나)·가치 중심의 일관된 브랜드·마케팅으로 타제품과 차별화되는 강력한 정체성(identity)을 구축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.

□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러한 ‘제품 중심의 IP 융합’이다.

- 현지 제품과 중국산 저가품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, 명확한 시장 타겟 설정과 그에 따른 특허(기술)·디자인·브랜드 융합으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고부가가치 창출은 커녕 해외진출 자체도 성공하기 어렵다.

□ 특허청이 산업부, 미래부, 중기청과 손잡고 추진하는 ‘글로벌 히트 365’ 프로젝트는 중소·중견기업의 제품 개발단계부터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갖추도록 IP 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, 올해부터 3년간 250억원을 투입하여 300여개 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.

- 산업부(코트라) ‘세계일류상품’ 기업, 미래부 ‘K-글로벌300’ 기업, 중기청 ‘월드클래스300’ 기업을 비롯하여,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유망 중소·중견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,
- 특허청의 전세계 특허·디자인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 지원에 세계일류상품, K-글로벌300, 월드클래스300의 브랜드·해외조사·글로벌마케팅을 연계·통합하여, 각 부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해외진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.

□ 이번 전문가 포럼에서는,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의 IP 융합 전략

및 분쟁 사례 발표와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 방안에 관한 패널토론을 통하여, IP 융합 전략의 이해도 제고와 민간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.

-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금번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글로벌 히트 365 프로젝트의 IP융합 전략을 민간에 확산하는 한편, 앞으로도 중소·중견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책 수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정부 3.0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□ 추진 배경

- 전 세계적으로 우리 수출기업과 외국기업 간 IP분쟁이 발생 중이나, 중소·중견기업의 대응역량이 미흡하여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

* 외국기업 소송제기, 로열티요구 → 수출상품 원가 상승 → 가격경쟁력 저하

☞ 우리 상품의 경쟁우위를 위해 고객관점에서 차별화된 IP종합지원 필요

□ 추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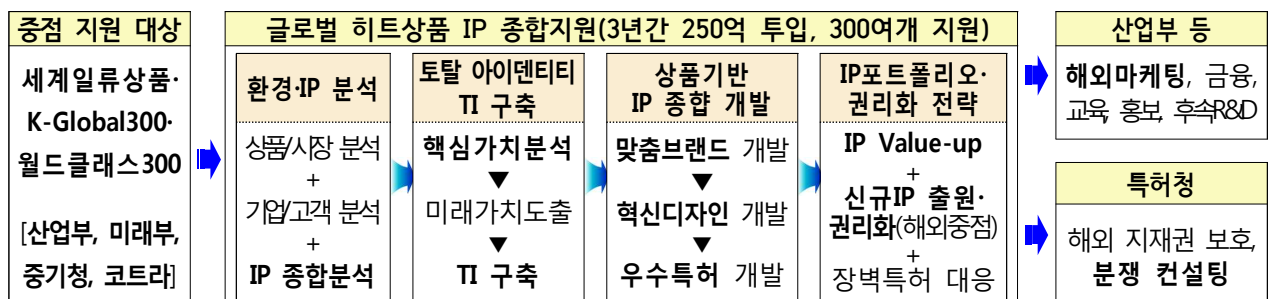
- (IP 종합지원) 중소·중견기업의 히트상품이 IP분쟁 걱정 없이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해외 브랜드·디자인·특허 확보 지원

* 특허청의 디자인·특허전략지원과 산업부(코트라), 미래부, 중기청의 브랜드·해외정보조사·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연계·통합

- 시장·환경 분석을 통해 타겟 고객을 사로잡을 현지 맞춤 브랜드·혁신디자인을 먼저 만들고 이에 맞춰 특허기술 개발, 해외 권리화 지원

* IP전략전문가와 IP분석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연구자 밀착 지원

- (집중지원체계) IP종합지원 후 해외마케팅, 분쟁 컨설팅 등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부 등과 협업하여 원스톱 집중지원체계 구축



□ 향후 계획

- 프로젝트의 IP 융합 지원 효용성 분석 및 우수사례 발표회(12월~)